

##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Monito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tress and Problem Behavior\*

안혜원(Hye Won Ahn)<sup>1)</sup>

이재연(Jae Yeon Lee)<sup>2)</sup>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monito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problem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Youth Panel Study (KYPS) was used as sample data with a total of 2,503 11th grade students involved in this study.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parental attachment (for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nd parental monitoring (for male adolescents) played the role of moder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problem behavior. That is, good parental attachment and monitoring reduced stress inducing problem behavior for male adolescents but only parental attachment reduced stress inducing problem behavior for female adolescents. Conclusion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arents' role in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 스트레스(stress), 부모애착(parental attachment),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 문제행동 (problem behavior).

###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  
기적 단계로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

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아동기나 성인기보다 신  
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를 많이 겪으며 가정,  
학교생활 및 진로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  
인에 노출되고 있다(권오숙·문성호, 2007; 최

\* 2007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sup>1)</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청소년복지전공 석사

<sup>2)</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 Won Ahn, 52, Cheongpa-dong,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E-mail : foody82@naver.com

명구·신은영, 2003; 한건환·장휘숙·안권순, 2004).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에서 최근에 발표한 2006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응답자 중 32.66%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하였고, 55.24%는 스트레스를 조금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연령에 따라서는 15-18세의 청소년이 12-14세의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정경택, 2003),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주, 2001; 한건환·장휘숙·안권순, 2004). 이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폭력, 비행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학교 및 생활 부적응,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영식·한상철, 2000; 정경택, 2003).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개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는 부적응의 결과(윤혜미·박병금, 2004; 허은경·이경님, 2006)로써 이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체계간의 상호교류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Cohen & Cohen, 1983). 그러므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부모와 청소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하여 스트레스나 문제행동에 부모관련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김민정·도현심, 2001; 김선희, 2006; 김인숙·이경님, 2004; 허은경·이경님, 2006; Allen, Poter, McFarland, McElhaney, & Marsh, 2007; Williams & Kelly, 2005)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모관련 변인들 중 하나인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경님, 2003). 애착의 경우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강한 유대적관계로(Bowlby, 1969), 애착은 전 생애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Ainsworth, 1982).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와 같이 눈에 보이는 애착 행동은 감소하지만, 애착의 인지적-정서적 차원들은 청소년기에도 그대로 지속된다(장휘숙, 1997). 이러한 애착의 생애 발달적 관점을 토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박정녀·최해림, 2005; 박지아·유성경, 2003; 이경님, 2003; 이정숙·백지은, 2004; Buist, Dekovic, Meeus, & Van-Aken, 2004; Elgar, Knight, Worrall, & Sherman, 2003; Kerr & Stattin, 2000)을 살펴보면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이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면 청소년의 공격적인 행동은 감소되고(Liu, 2006), 심리적 안녕에도 직·간접적 영향(옥정·오윤희·정현옥, 2001)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애착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Papimi & Roggman, 1992). 따라서 청소년이 의미 있는 대상인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모애착과 함께 부모감독 역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희화, 2003;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부모감독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Fletcher, Darling, & Steinberg, 1995),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점검하고,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보다 중요해지면서 집보다는 집밖에서 또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정자, 2005). 부모감독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감독한 결과, 청소년의 내현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5; Fletcher, Steinberg, & Williams-Wheeler, 2004; Romero & Ruiz, 2007). 또 청소년기의 부모감독 여부와 부모감독 수준에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류나미·윤혜미, 2006;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감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국내연구는 국외연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부모감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애착, 부모감독과 문제행동 각 변인들이 성차를 보인다는 결과들(서찬란, 2005; 이종원, 2001; Kerr & Stattin, 2000)은 많았으나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발견되고 있다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경남(2004)의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문제행동에 있어 부모애착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감독과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박진경(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감독이 남자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청소년들에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감독을 할수록 남자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가 성차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영향력에 대한 확인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 및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감독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 Korean Youth Panel Survey)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직업선택 및 향후 진로설정, 이탈, 여가, 가족생활, 자아관 등 성장과정 중의 여러 가지 태도나 행위의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자 수집되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대상은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그 부모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학생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그 부모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종단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패널데이터는 중학생패널데이터 자료로 2003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 틀로 하여 전국 12개 특별시·광역시·도별로 층화다단계집락으로 표집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가 우리나라 전 지역의 청소년들의 표본을 토대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국한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결과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활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데이터 중에서 4차년도(2006년)에 실시된 자료를 사용했으며, 연구대상은 4차년도 조사에 응한 3,121명 중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과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모두 제외한 2,503명이다.

### 2. 연구도구

#### 1)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하며 스트레스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 정서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연구 내용에 바탕을 두었다. 청소년패널데이터에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17문항으로, 청소년기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5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눈 김준호와 이동원(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과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각 문항은 '그런 적 없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인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문항의 전체 Cronbach  $\alpha$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 2) 부모애착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은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정서적인 친밀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패널데이터에서 부모애착을 묻는 문항은 총 6문항으로, Hirsh(1969)가 제시한 부모애착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김준호와 이동원(1996)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다음과 같다 :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인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인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와의 애착 수준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애착 문항의 전체 Cronbach  $\alpha$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 3) 부모감독

본 연구에서는 부모감독을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긍정적인 관심으로 보며, 이는 자녀의 활동과 적응, 위치에 대해 알고 추적하는 일련의 양육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패널데이터에서 부모감독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김준호와 이동원(1996)이 Hirsh(1969)의 부모감독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다음과 같다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

아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인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감독 수준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감독 문항의 전체 Cronbach  $\alpha$  계수는 .86로 나타났다.

### 4)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현화 문제행동이 섞여서 나타나며 (오경자 · 이해린, 1990), 문제행동은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 심리적인 부적응이라는 연구결과(한미현, 1996)에 근거하였다. 그래서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성과 내현화 문제행동인 우울/불안 변인을 묶은 포괄적인 의미의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청소년패널데이터에서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11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위해 구성된 공격성에 관한 6개 문항과 우울/불안에 관한 5개의 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인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제행동 문항의 전체 Cronbach  $\alpha$  계수는 .80이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 애착 및 부모감독과 문제행동을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중재효과가 성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모형에 투입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즉,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는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주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중재변수인 부모감독도 부모애착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 III 결과분석

### 1.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과 문제행동에서의 성차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과 문제행동에서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표 1>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과 문제행동 *M(SD)*

구분	스트레스	부모애착	부모감독	문제행동
남자 청소년 ( <i>N</i> =1283)	2.64(.60)	3.34(.68)	3.27(.78)	2.67(.58)
여자 청소년 ( <i>N</i> =1220)	2.79(.55)	3.46(.73)	3.50(.81)	2.81(.59)
<i>t</i>	6.23***	4.16***	7.20***	5.73***

\*\*\* $p < .001$

1>과 같다.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과 문제행동 점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녀 청소년 모두 스트레스나 문제행동 수준이 낮고,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청소년의 점수가 남자청소년의 점수에 비해 스트레스( $t=6.23, p < .001$ ), 부모애착( $t=4.16, p < .001$ ) 및 부모감독( $t=7.20, p < .001$ )과 문제행동( $t=5.73, p < .001$ )의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모든 변수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설정된 변수들의 회귀식 투입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문제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문제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46, p<.01$ ),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도 문제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49, p<.01$ ). 이는 남녀청소년 모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은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부모애착( $r=-.14, p<.01$ ) 및 부모감독( $r=-.11, p<.01$ )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여자청소년의 부모애착( $r=-.15, p<.01$ ) 및 부모감독( $r=-.19, p<.01$ )도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남녀청소년 모두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부모애착( $r=-.23, p<.01$ ) 및 부모감독( $r=-.15, p<.01$ )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도 부모애착( $r=-.24, p<.01$ ) 및 부모감독( $r=-.16, p<.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과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1	2	3	4
남자 청소년 ( $N=1283$ )	1. 스트레스				
	2. 부모애착	-.23**			
	3. 부모감독	-.15**	.45**		
	4. 문제행동	.46**	-.14**	-.11**	
여자 청소년 ( $N=1220$ )	1. 스트레스				
	2. 부모애착	-.24**			
	3. 부모감독	-.16**	.50**		
	4. 문제행동	.49**	-.15**	-.19**	

\*\* $p<.01$

### 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의 중재효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이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스트레스 영향력을 부모애착이 중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따르면 남녀청소년 모두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애착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남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은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21.3%의 설명력으로 유의하였고( $F=174.41, p<.001$ ), 이 중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45, p<.001$ ).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후 설명력이 22.8%로 유의했고( $F=127.01, p<.001$ ), 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의 상호작용 변인이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65, p<.001$ ), 그 설명력은 1.5%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도,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애착의 중재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은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24.2%의 설명력으로 유의하였고( $F=196.00, p<.001$ ), 이 중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49, p<.001$ ).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후 설명력이 24.8%로 유의했고( $F=135.17, p<.001$ ), 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의 상호작용 변인이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45, p<.001$ ), 그 설명력은 0.6%였다. 이는 남녀청소년의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더라도 부모애착에 의해 문제행동을 경험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남자 청소년 (N=1283)	문제행동	스트레스(A)	.45***	-.09
		부모애착(B)	-.03	-.52***
		A × B		.65***
		$R^2$	.213	.228
		$\Delta R^2$		.015
		F	174.41***	127.01***
여자 청소년 (N=1220)	문제행동	스트레스(A)	.49***	.14
		부모애착(B)	-.03	-.40***
		A × B		.45***
		$R^2$	.242	.248
		$\Delta R^2$		.006
		F	196.00***	135.17***

\*\*\* $p < .001$

4.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스트레스와 부모감독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부모 감독이 중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따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만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대

<표 4>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감독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남자 청소년 (N=1283)	문제행동	스트레스(A)	.46***	.22*
		부모애착(B)	-.04	-.28**
		A × B		.32*
		$R^2$	.213	.216
		$\Delta R^2$		.003
		F	174.72***	118.90***
여자 청소년 (N=1220)	문제행동	스트레스(A)	.47***	.34***
		부모애착(B)	-.12***	-.27*
		A × B		.19
		$R^2$	.255	.255
		$\Delta R^2$		.00
		F	209.40	140.30***

\* $p < .05$  \*\* $p < .01$  \*\*\* $p < .001$

한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남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부모감독은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21.3%로 유의했고( $F=174.72, p<.001$ ), 이 중 스트레스만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포함되었다( $\beta=.46, p<.001$ ).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부모감독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후 설명력이 21.6%로 유의했다( $F=118.90, p<.001$ ). 스트레스와 부모감독의 상호작용 변인이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32, p<.05$ ), 그 설명력은 0.3%였다. 그러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남자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더라도 부모감독에 의해 문제행동을 경험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라는 두 변인이 스트레스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이,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애착만이 중재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부모애착 변인의 중재역할은 남녀청소년들 모두에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남녀청소년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을 경험할 확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역할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고정자, 2005;

이경남, 2004)의 결과와 부모애착만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Raja, McGee, & Stanton, 1992)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에게 느끼는 정서적인 친밀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우울/불안과 같은 문제행동을 덜 경험하게 하는 중재변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애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부모감독 역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중재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남자청소년에게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관심이 남자청소년의 공격성이나 우울/불안과 같은 문제행동을 덜 경험할 확률이 낮아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감독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 하여 폭력과 비행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선희(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감독정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감소하며(고정자, 2005), 어머니의 감독이 청소년의 음주와 비행행동이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정운주·낸시 달링, 2006)를 지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여자청소년의 경우 상관관계에서 부모감독과 문제행동의 상관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높았던 것에 비해서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자청소년에게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더 커서 부모감독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했거나, 여자청소년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을 부모감독이 중재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에 비해서 주로 보이는 우울/불안과 같은 문제행동이(Brooks, Harris, Thrall, & Woods, 2002) 외부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인 부모감독 변인으로 는 조절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 예방을 위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자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은 부모애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남자청소년은 부모애착과 더불어 부모감독이 병행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여자 청소년을 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통한 유대감을 강화해야 하고, 남자청소년을 둔 부모는 정서적인 유대감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청소년기 특징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자녀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히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가정의 노력과 함께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는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의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의 문제행동 척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한 것으로 각 척도의 문항에 있어 최근에 많

이 겪게 되는 청소년의 경험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경우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그리고 인터넷 관련한 문제행동에 관한 질문은 포함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현화 문제행동을 묶어서 포괄적인 문제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보다 명확한 중재변인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게 세분화시킨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제행동을 성별에 따라 세분화시켜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부모관련 변인으로 제한하여 중재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고 변화를 겪는 존재이므로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차원적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중재요인을 찾아야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보고 식 평가로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의 경우 많은 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게 되므로 부모 및 교사 평가를 포함한 문제행동척도를 개발하여 이들 관련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 참 고 문 헌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06 청소년백서.
- 권오숙·문성호(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 31-46.
- 김민정·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선희(2006).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주(2001).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이경님(2004).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한국가정과학회지*, 7(2), 97-113.
- 김재엽·최선희(1998). 청소년 스트레스가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논집*, 29, 181-204.
- 김준호·이동원(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류나미·윤혜미(2006). 또래압력, 부모감독과 음주기대 및 청소년 음주행동의 변화추이.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891-903.
- 박정녀·최해림(200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 박지아·유성경(2003). 적응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65-778.
- 박진경(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과 청소년의 외현화·내면화 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찬란(2005). 가족환경 요인 및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이혜련(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증후군 연구1.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9(1), 33-55.
- 옥정·오윤희·정현옥(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 재소 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2), 259-270.
- 윤혜미·박병금(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279-301.
- 이경님(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1-13.
- 이경님(2004). 초기청소년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12, 43-54.
- 이정숙·백지은(2004). 아동의 애착과 자아지각 및 행동문제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9(3), 149-168.
- 이종원(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영식·한상철(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학문사 : 서울.
- 장휘숙(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5.
- 정경택(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2(2), 151-162.
- 정윤주·낸시 달링(2006). 어머니의 감독과 부모가 정한 규칙에 대한 준수의무감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 및 타인 소유물 파손 행동. *아동학회지*, 24(3), 73-85.
- 최명규·신은영(2003). 청소년의 자아구조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7(4), 1-16.
- 한건환·장휘숙·안권순(2004).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양식 및 문제 행동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1(3), 385-402.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은경·이경님(2006).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

- 한가정학회지, 44(4), 111-122.
- Ainsworth, M. D. S. (1982).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 Basic Books.
- Allen, J. P., Poter, M., McFarland, C., McElhaney, K. B., & Marsh, P.(2007). The Relation of Attachment Security to Adolescents' Paternal and Peer Relationships,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4), 1222-1239.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1 :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rooks, T. L., Harris, S. K., Thrall, J. S., & Woods, E. R. (2002). Association of Adolescent Risk Behaviors With Mental Health Symptom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1*(3), 240-246.
- Buist, K. L., Dekovic, M., Meeus, W., & Van-Aken, M. A. G. (2004).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arly adolescent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Journal of Adolescence, 27*(3), 251-266.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 Lawrence Erlbaum.
- Elgar, F. J., Knight, J., Worrall, G. J., & Sherman, G. (2003). Attachment characteristics and behavioural problems in rural and urban juvenile delinqu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4* (1), 35-48.
- Fletcher, A. C., Darling, N., & Steinberg, L. (1995).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Cambridge, M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etcher, A. C., Steinberg, L., & Williams-Wheeler, M. (2004).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5*(3), 781-796.
- Hirsch, T. (1969). *The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 Laird, R. D.,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2003). Parents' monitoring-relevant knowledge an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 Evidence of correlated developmental changes and reciproc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74*, 752-76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u, Y. L.(2006). Paternal/Maternal Attachment, Peer Support, Social Expectations of Peer Inter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dolescence, 41*(164), 705-722.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4), 420-440.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 and pe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56-68.
- Romero, A. J., & Ruiz, M. (2007). Does Familism Lead to Increased Parental Monitoring? : Protective factors for Coping with Risky Behavi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2), 143-154.
- Williams, S. K., & Kelly, F. D. (2005). Relationships Among Involvement, Attachment, and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ce : Examining Father's Influ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 (2), 168-196.

2008년 12월 31일 투고, 2009년 1월 4일 수정  
2009년 1월 16일 채택